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이상향의 경관 특성*

소현수* · 임의제**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Utopia Shown in the Travel Records of Jirisan Mountain

So, Hyun-Su* · Lim, Eui-J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contemplates the utopian landscape recognized by the scholars with twenty three pieces of 'travel record'. Consequently, five key words - Mureungdowon(武陵桃源), Byeolcheonji(別天地), Dongcheon(洞天), Chonghakdong, Eungeoji(hermitage) - are chosen for comprehending the utopia and their landscape characteristics are organised as follows.

Mureungdowon in Jirisan Mountain which the scholars dreamed of is a flatland with the full energy for local vegetation and domestic animals in the mysterious and deep gorge. This utopia eventually reflects the rural landscape. Byeolcheonji is a utopia combining the concept of a fairyland and beautiful scenery. The scholars also used the term 'Dongcheon' for naming the enclosed landform which is suitable for seclusion and defining the some areas of beautiful scenery. Cheonghakdong, which is set only in Jirisan Mountain, has been formed by the stone scenery of gorges and Buril waterfalls around the whole area of Burilam Hermitage, the vegetation scenery of pine trees and bamboos with the legend of Choi Chiwon and his engraved inscription on a rock. Adding to the utopia passed down, the scholars perceived the village with geographical features with back to the mountain and facing the water, the river practising the trade, the flatland enclosed by bamboo forests, the vegetation mainly consisting of fruit trees and beautiful scenery as the utopia realized on earth. It is equivalent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laboring appropriately and living in Mother Natur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apprehend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culture of strolling in the mountains by the scholars of Joseon Dynasty and the fairyland and explaining the various traditional utopias from the inherited concepts from China to the naturalized realistic utopia.

Keywords: Yoosangee, Fairyland, Murengdowon, Dongcheon, Chonghakdo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리산 유람록 23편을 대상으로 하여 문인들이 인식한 이상향의 경관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장 속에 묘사된 '무릉도원(武陵桃源)', '별천지(別天地)', '동천(洞天)', '청학동', 그리고 '은거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지리산 이상향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경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문인들이 꿈꾼 지리산의 '무릉도원'은 신비감을 주는 깊은 산속, 협곡 안에 마련된 넓고 평평한 터, 감나무와 밤나무 등 향토식생, 닭과 소 등 생리(生利)를 만족시키는 토속경관이 반영된 이상향이다. '별유천지(別有天地)'의 '별천지'는仙境(仙境)과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Lim, Eui-J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Jinju 660-758, South Korea, Phone: +82-10-9830-1213, E-mail: sonagi@gntech.ac.kr

승경 개념이 결합된 이상향이다. 또한 문인들은 은일에 적합한 위요된 지형 구조를 가진 곳에 이름을 붙이거나 일정한 영역의 승경지를 한정하는 개념으로 ‘동천’을 사용하였다. 지리산에 설정된 ‘청학동’은 불일암 일대 협곡과 불일폭포로 이루어진 수석(水石)경관, 소나무와 대나무 등 식생경관을 토대로 하여 최치원의 설화와 바위글씨로 전승되었다. 문인들은 지리산에서 배산임수형 지세, 교역 가능한 하천, 대숲으로 위요된 평평한 토지, 유실수 위주의 식생, 아름다운 산수를 갖춘 마을을 지상에 실현된 이상향으로 인지하였다. 이것은 대자연 안에서 적당하게 노동하며 사는 인간 세상의 모습과 같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유산(遊山) 문화와 이상향의 관련성, 그리고 선계(仙界)로 인식한 지리산의 여건을 파악하고, 중국에서 전래된 개념부터 토착화된 현실적 이상향까지 다양한 전통적 이상향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유산기(遊山記), 선경(仙境), 무릉도원, 동천(洞天), 청학동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양의 ‘유토피아(Utopia)’에 해당하는 이상향은 물리적 공간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건 하에서 인간의 가치를 표현한 개념이다. 이상향은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를 나타내지만 속세와 구별되는 특별한 곳도 포함한다. 서양의 에덴동산이 담장을 둘러 자연과 격리된 것과 달리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이상향은 자연에 귀속되어 이상적 삶의 조건이 완비된 최적의 입지처를 선택하는 실천적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 집단의 이상향에 대한 양상은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시·공간적 환경심리, 가시적 문화경관 형성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드러난다(Choi, 2009).

우리 선조들이 찾은 ‘속세와 구별되는 특별한 곳’은 지리산의 ‘청학동(靑鶴洞)’, 금강산의 ‘이화동(梨花洞)’, 바다 어딘가의 섬 ‘단구(丹邱)’, 속초 영랑호 근처의 ‘회룡굴(回龍窟)’ 등 셀 수 없이 많다(Suh, 2010).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개입된 이상향의 사례들은 지형·지리적으로 동천복지형(洞天福地型)과 해도형(海島型)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Choi, 2009: 748). 청학동은 동천복지형 이상향의 원형으로서 삼신산(三神山) 중에서 ‘방장산(方丈山)’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지리산과 관련하여 통일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 857~?)과 고려시대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설화¹⁾가 전승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선조들에게 지리산은 신비로운 경관에 의해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조선시대 영남 사람들은 지리산을 방문함으로써 인간 세상을 벗어나 물외(物外)에서 노니는 것을 경험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었다²⁾. 이러한 문인들의 산행은 새로운 문화가 되었으며, 유람 후 체험과 감흥을 새로운 서술 체계로 작성한 문학 장르인 유람록³⁾이 만들어졌다. 함축적 언어로 작성된 시문과 달리 상세한 서술이 특징인 유람록은 당시 경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연

구의 가치를 가진다. 일례로, 이상향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 청학동이 현재 알려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가 아니라 불일암·불일폭포가 있는 쌍계사 일대를 지칭하였다. 지리산 유람록에는 청학동뿐만 아니라 무릉도원, 별천지(別天地), 동천(洞天) 등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이상향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람록은 당시 문인들이 도가적 자취를 내포하면서 인간 세상 속에 감춰진 신선 세계를 지향하였던 ‘선유(仙遊)’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지리산 유람록을 통해서 선조들이 인식한 이상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상향에 대한 추상적 접근에 집중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이상향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구체적 경관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전통적 이상향을 설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문인들의 유산(遊山) 문화와 선경(仙境)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선조들이 선계(仙界)로 인식한 지리산의 여건을 규명하여 중국에서 전래된 전형적 이상향과 다른, 우리 국토를 기반으로 풍토에 적합한 이상향의 양상과 경관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지리산 유람록은 이륙(李陸, 1438~1488)이 1463년 지리산을 방문하고 기록한 「유지리산록(遊智異山錄)」을 효시로 하여 20세기 중반까지 약 100여 편이 만들어졌다⁴⁾.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의 지리산 유람록은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고, 최치원이 불가(佛家)에 심취한 점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반복하여 등장함으로써 이상향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Choi et al., 2013: 161~165).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문인들이 지리산 유람을 다녀온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로 한정한다.

한문으로 작성된 유람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를 발굴하고 고증, 번역하는 선행 작업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 대상이 된 지리산 유람록은 지리산권문화연구단 번역총서로서 총 6권으로 구성된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에 소개되었다⁵⁾. 1권 책머

리에 “원문의 의미를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원의를 충실히 살리려고 하였다. 따라서 학술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람록에 보이는 특정한 곳이나 특정 인물들의 유적에 대해서는 부록 자료를 실어 참고하게 하였다(Choi et al., 2000: 6-7).”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리산 유람록 별로 유람일시와 일정이 정리되고, 유람 행로가 간략한 도면으로 제시되었으며, 기록 중 등장하는 예전 지명에 대한 현재 소재지를 각주로 달아 이해를 돕는다. 여기에 유람록 작가의 연혁 등 연구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부가되었다. 본 연구는 6권의 책 중에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작성된 지리산 유람록이 실린 두 권의 책,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2000)』과 『지리산

유람록(2008)』에 소개된 27편의 지리산 유람록 중에서 이상향에 대한 묘사가 있는 Table 1의 유람록 23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3편의 지리산 유람록 원문과 원문 해석 자료를 연구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산 유람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의 내용은 23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 이상향과 신선 세계를 묘사한 문장을 추출하여 그 문장을 토대로 문인들이 인식한 지리산 이상향의 양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고찰 결과로서 이상향으로 지목된 지리산의 공간과 이상향을 구성하는 지리산 경관의 특성을 제시한다.

Table 1. Travel Records of Jirisan Mountain as Subjects of Study

출처	연번	유람록의 명칭	유람록의 작가	참조	유람 시기(음력)	주요 방문 장소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2000)	1	유두류록 (遊頭流錄)	김종직(金宗直, 1431~1492)	○	1472. 8. 14~8. 18	가을 함양, 엄천, 화암, 고열암, 천왕봉, 통천문, 영신사, 등구재
	2	지리산일과 (智異山日課)	남효온(南孝溫, 1454~1492)	○	1487. 9. 27~10. 13	가을 단속사, 천왕봉, 영신암, 의신암, 칠불사, 화개동, 쌍계사, 불일암
	3	두류기행록 (頭流紀行錄)	김일손(金鰲孫, 1464~1498)	●	1489. 4. 14~4. 28	봄 용유담, 단속사, 법계사, 천왕봉, 영신사, 신흥사, 쌍계사, 청학동
	4	유두류록 (遊頭流錄)	조 식(曹 植, 1501~1572)	●	1558. 4. 10~4. 25	봄 하동, 악양, 삽암,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 악양현
	5	두류산기행록 (頭流山紀行錄)	양대박(梁大樸, 1543~1592)	●	1586. 9. 2~9. 12	가을 백장사, 실상사, 두모담, 군자사, 용유담, 제석봉, 천왕봉
	6	두류산일록 (頭流山日錄)	박여량(朴汝樑, 1554~1611)	●	1610. 9. 2~9. 8	가을 함양, 용유담, 군자사, 제석당, 천왕봉, 상류암, 방곡촌
	7	유두류산록 (遊頭流山錄)	유몽인(柳夢寅, 1559~1623)	●	1611. 3. 28~4. 8	봄 정룡암, 용유담, 천왕봉, 의신사, 신흥사, 쌍계사, 불일암, 화개동
	8	방장산선유일기 (方丈山仙遊日記)	성여신(成汝信, 1546~1632)	◎	1616. 9. 24~10. 8	가을 삽암, 도탄, 쌍계사, 불일암, 화개현, 신흥사, 평사역 촌가
지리산 유람록 (2008)	9	두류산선유기 (頭流山仙遊記)	박 민(朴 敏, 1566~1630)	◎	1616. 9. 24~10. 8	가을 삽암, 도탄, 쌍계사, 불일암, 화개현, 신흥사, 평사역 촌가
	10	유두류산록 (遊頭流山錄)	조위한(趙緯韓, 1567~1649)	●	1618. 4. 11~4. 17	봄 남원, 곡성, 구례, 화개동,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
	11	상쌍계신흥기행록 (賞雙溪神興紀行錄)	양경우(梁慶遇, 1568~1629)	◎	1618. 4. 15~5. 18	봄 하동, 악양, 화개, 쌍계사, 불일암, 완곡대, 신흥동
	12	지리산청학동기 (智異山靑鶴洞記)	허 목(許 穆, 1595~1682)	○	1640. 9. 3	가을 악양, 섬진강, 삼신동, 쌍계사, 불일암, 청학동, 완곡대
	13	유두류산기 (遊頭流山記)	박장원(朴長遠, 1612~1671)	●	1643. 8. 20~8. 26	가을 안음현, 함허정, 용유담, 군자사, 제석당, 천왕봉, 금대암
	14	두류산기 (頭流山記)	오두인(吳斗寅, 1624~1689)	●	1651. 11. 1~11. 6	겨울 악양, 화개현, 쌍계사, 불일암, 옥소암, 신흥사, 신계촌, 덕산서원
	15	유두류산기 (遊頭流山記)	김지백(金之白, 1623~1670)	◎	1655. 10. 8~10. 11	가을 화엄사, 연곡사, 화개동, 쌍계사, 불일암, 청학동, 삼신동, 칠불암
	16	두류록 (頭流錄)	송광연(宋光淵, 1638~1695)	●	1680. 8. 20~8. 27	가을 쌍계사, 청학동, 불일암, 완곡대, 삼신동, 칠불사, 천왕봉, 군자사
	17	유두류일록 (遊頭流日錄)	신명구1(申命壽, 1666~1742)	◎	1719. 5. 16~5. 21	여름 덕산, 삼천, 진주담, 남대암, 무위암, 동당곡, 덕산사, 세심정
	18	유두류속록 (遊頭流續錄)	신명구2(申命壽, 1666~1742)	◎	1720. 4. 6~4. 14	봄 삽암, 화개, 쌍계사, 청학동, 완곡대, 불일암, 삼신동, 신흥사
	19	두류록 (頭流錄)	정 식1(鄭 拭, 1683~1746)	◎	1724. 8. 2~8. 27	가을 덕천서원, 남대암, 천왕봉, 쌍계사, 불일암, 칠불암, 신흥암, 삽암
	20	청학동록 (靑鶴洞錄)	정 식2(鄭 拭, 1683~1746)	◎	1743. 4. 21~4. 29	봄 악양, 화개동, 쌍계사, 내일암, 향로봉, 불일암, 칠불암, 신흥암
	21	두류산유행록 (頭流山遊行錄)	황도익(黃道翼, 1678~1753)	◎	1744. 8. 27~9. 9	가을 화개, 쌍계사, 완곡대, 불일암, 삼신동, 칠불암, 신흥사, 신흥동
	22	유두류산록 (遊頭流山錄)	이주대(李柱大, 1689~1755)	◎	1748. 4. 1~4. 24	봄 덕천서원, 하동, 악양, 화개동, 쌍계사, 신흥암, 칠불암, 불일암
	23	남유기 (南遊記)	김도수(金道洙, 1699~1733)	●	1727. 9. 12~10. 5	가을 삽암, 화개장터,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 칠불사, 연곡사, 화엄사

○ : 한국문집총간 원문과 번역 자료 참조 ● : 한국문집총간 원문 자료 참조 ◎ : 최석기 저서의 원문과 번역 자료 참조

3. 연구사

국문학과 한문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유람록에 대한 발굴 및 번역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지리산, 청량산, 금강산, 한라산, 가야산, 무등산, 계룡산, 속리산 등 우리나라 명산을 방문하고 작성한 문인들의 유람록이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작가인 문인들의 성향과 유산의 목적, 내용상 함축하는 의미 외에 유람록의 시공간적 추이, 새로운 문학 장르로서 유람록의 구성과 서지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Ho, 1995; Lee, 1997; Lee et al., 1997; Park, 1999; Park, 2004). 또한 이들 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학, 미술학, 교육학, 관광학, 임학, 건축학 등에서 다방면으로 응용한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조경학 분야에서는 So(2003)가 지리산 유람록에서 묘사된 문인들의 조경적 인식을 산수관, 승경관, 가거관으로 정리하면서 유람록 연구가 시작되었고, Lee(2014)도 지리산 유람록에서 현대의 명승 개념에 적용한 14개의 대상지를 추출하였다. 또한 Ahn(2011)은 희양산 경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자료로써 유람록을 도입하는 등 다수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에 유람록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이상향이나 선경 역시 인문학 분야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시, 소설,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문화의 결과물에서 전통적 이상향을 파악하였다. 조경학 분야에서 Lee(1995)가 조선시대 산수화에 표현된 이상향의 경관이 실제 경관을 수용한 현실 속 유토피아라는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Sim(2007)은 동서양 고분벽화에서 이상향을 살핀 바 있다. Kim and Chin(2002)은 방장선도와 함께 승경지에 은일처로서 동천을 경영한 고대 원림 문화의 양상을 설명하였다. Lee(2010)은 우리나라 동천의 입지 유형을 제시하고 ‘심산동구형(深山同口型)’ 동천을 무릉도원형 이상향의 공간구조라고 정리하였다. 개별 전통공간에 집중하여 Rho and Shin(2010)은 한라산의 방선문(訪仙門), Park et al.(2010)은 선유구곡, Rho et al.(2011)은 같은구곡의 선경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Kim(2007)은 내앞마을을 유교적 이상향 만들기로 설명하였으며, Kim(2009)은 17세기 선비 다섯 명이 산수에 경영한 은거지를 이상향으로 이해하여 경관 처리 방식을 정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은거지를 지리산 이상향과 연계시켜 고찰한 부분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특히 Kang(2009)는 지리산 유람록 작가들이 지리산을 선계로 인식하고 유선(儒仙)으로서 유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여 본 연구에서 주제를 설정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Ha(1994)은 지리산 지역의 이상향으로 최치원과 조식이 언급한 화개동천과 목계, 그리고 이후 조성된 도인촌과 덕산동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현실적 사회 개혁에 관심을 두고 이상적으로 구상한 사회를 잘 나타낸 것이 이중환의 『택리지』 「복거총론」에 기술된 가거지론(可居地論)이라

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문인들이 지리산의 민촌을 살만한 곳으로 인식한 조건을 살펴 이상향과 연계시키는데 바탕이 되었다. 또한 Choi(2009)은 지리산 청학동이 한 군데가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곳으로 전개된 양상을 제시하여 청학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본 연구는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되 이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리산 유람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문장을 분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상향의 상징성에서 나아가 문인들이 지칭한 지리산 이상향의 물리적 공간을 탐색하고 경관 요소 및 입지 특성을 도출하여 구체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것은 동시대 다수의 문인들이 지리산이라는 같은 곳을 체험하면서 인식했던 여러 가지 이상향을 한꺼번에 비교·고찰할 수 있는 유람록이라는 문헌의 내용적 속성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II. 지리산 유람과 선경의 관련성

1. 지리산 유람의 양상

Table 1에 정리한 정보에 따르면, 겨울에 방문한 오두인(14)과 여름에 방문한 신명구1(17)를 제외하면 문인들이 지리산을 방문한 시기가 봄에 8명, 가을에는 13명이어서 자연의 미감을 만끽할 수 있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람 여정을 살펴보면, 문인들은 지리산에 인접한 여러 고을에서 출발하여 천왕봉을 오르거나 청학동을 찾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출발지는 경상남도에도 소재한 함양, 거창, 함천, 안의, 산청, 진주, 함안, 하동, 악양 등이며, 전라북도에도 소재한 남원, 장성, 운봉과 전라남도 구례, 순창이다. 양경우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진도, 강진, 보성, 순천을 거쳐 하동, 악양, 쌍계사에 이르는 긴 일정으로 유람하였다. 여기서 영남과 호남에 걸쳐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지리산의 위상을 인지할 수 있다. 여정 중 방문 장소에는 화엄사, 연곡사, 백장사, 실상사, 군자사, 단속사, 덕산사, 법계사, 신흥사, 의신사, 영신암, 칠불암, 쌍계사, 불일암 등 지리산 일대 사찰 및 암자가 많았다. 이외에도 문인들은 덕천(덕산)서원, 세심정, 악양리 등 유학자를 기리는 서원이나 은거지, 그리고 용유담, 두모담, 용추, 섬진강 화개동, 삼신동, 불일폭포, 완폭대 등 하천 주변 자연 승경지를 방문하였다.

2. 지리산 유람의 목적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리산을 유람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청학동·삼신동 등 선계에서 노닐며 탈속적 정취를 즐기는 것이다(Choi et al., 2013: 57). 이와 관련하여 속박된 현실을 떠나 자

유로운 선계를 유람하고 싶다는 문인들의 유람 목적이 연구 대상의 유람록 중 12편에서 기술되었다.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세상과 차별화된 신선 세계 즐기기’라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산 속의 꽃이 지기 전에 선계를 찾아 시를 수창하며 명승지를 기행한다면 이는 평생 얻기 힘든 좋은 기회라네(양경우)’라고 하였다. 또한 병을 앓게 된 일행 때문에 ‘이곳에서 곧장 돌아간다면 신선이 사는 곳을 유람하고 싶어 했던 소원을 끝내 풀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황도익)’라고 언급한 내용에서 동일한 지리산 유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람 목적으로 ‘신선이 사는 지리산 유람’에 대한 희망이 드러난다. 이에 대하여 ‘두류산은 곧 삼신산의 하나이다. 진시황과 한무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삼신산을 찾게 하느라 쓸데없이 공력을 허비하였는데, 우리들은 앉아서 이를 구경할 수 있다. 나는 올 봄에 두류산을 마음껏 유람하여 오랜 숙원을 풀고 싶소(유몽인)’라고 하였다. 또한 ‘구루의 수령이 되었던 갈지천(신선술에 능통했던 진나라 갈홍)의 마음도 일찍이 단사(선약의 재료)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진주에 도착하고 나서 매일같이 두 짝의 나막신을 준비하였으니, 두류산의 운무와 원학(원숭이와 학)이 모두 나의 단사이기 때문이었다(김일손)’라고 유람 목적을 설명하였다.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방장산을 유람하지 못했네, 일에 얽매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속세의 인연이 다 하지 못해 마귀들이 방해해서일 것이네(조위한)’라고 묘사하였다.

세 번째로 ‘지리산의 이상향 청학동 방문’ 목적을 가진 유람 빈도가 높았다. ‘나는 남쪽으로 내려온 이후 쌍계사를 한 번 찾아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소원을 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중략] 다만 발걸음을 두류산에 들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오두인)’라고 하였는데, 쌍계사는 당시 청학동이 위치하였던 불일계곡으로 접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장소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한 번만이라도 기이한 곳을 찾고 진경을 탐방하여 ‘쌍계석문’ 큰 네 글자를 손으로 만져보고, 팔영루 아래의 맑은 물에 발을 씻고, 아득한 옛날의 유선을 불러보고, 천 길 절벽에서 학의 등에 올라타고서 선경을 유람하여 내 평생의 소원을 풀고 싶었다(박여량)’라는 청학동을 향한 유람 목적이 제시되었다.

3. 지리산 유람 후 소회

문인들은 지리산 유람록 마지막에 ‘선경이라는 특별한 체험의 즐거움’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패랭이를 쓰고 갯신을 신고서 신선이 사는 산을 바라보니 맑은 흥이 가슴에 가득하고 차림새가 산뜻하여, 마치 가을 숲에서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온 듯, 구만리 상공으로 기러기가 날아가는 듯했다(정식1)’라

고 기술하였다. 또한 ‘선경을 떠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대나무 숲과 감나무 밭 사이사이에 채소밭이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인간 세상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머리를 돌려 청산을 바라보니, 안개와 노을이 드리우고 원숭이와 학이 노니는 선경을 떠난 회포가 벌써 가슴속에 밀려들었다(김일손)’라는 서술과 ‘날이 이미 저물어 그곳에서 묵었다. 나흘간의 유람에 처음으로 촌가에서 묵은 것이다. 하루 사이에 선계에서 속세로 바뀌어버렸다. 구름 덮인 산을 바라보니 씩씩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오두인)’라는 유람 후 소회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인간 세상은 대나무 숲, 감나무 밭, 채소밭 등 식생 경관과 촌가라는 문화경관으로 구체화하고, 신선 세계는 청산, 안개, 노을, 구름 등 기상 현상과 원숭이와 학이라는 상징 동물로 묘사하여 대비시켰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문인들이 지리산 유람 목적과 유람 후 소회를 기록한 글을 통해서 지리산과 선경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지백은 ‘두류산은 일명 방장산으로 불리니 삼신산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 크기는 열두 고을에 걸쳐 있어 빼어난 경치를 한두 군데로 꼽을 수 없다. 남으로는 바다와 가까워 더욱 맑은 기운이 쌓여 흠어지지 않아 그 기운이 서려있고 빙빙 돌며 충만하니, 신선이 사는 곳이라 믿을 만하다’라고 기록하였다. 문인들이 지리산을 삼신산 중 하나인 방장산이라고 부른 것은 김종직이 「유두류록」에 ‘방장산은 바다 밖 삼한에 있네[方丈三韓外]’라고 읊은 구절을 인용한 뒤이며,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이 두보(杜甫)의 시구⁶⁾를 전거로 삼아 방장산이 곧 지리산이라고 인식하였다(Choi et al., 2013: 27).

III. 지리산에서 찾은 이상향의 경관

1. 지리산 이상향의 유형 분석

23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 추출한 이상향과 신선 세계를 묘사한 문장들을 고찰한 결과, 이들 문장에 묘사된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 ‘청학동’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지리산 이상향의 유형으로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의 지리산 유람록별로 추출된 이상향 키워드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무릉도원은 9편, 별천지는 7편, 동천은 9편, 청학동은 14편의 지리산 유람록에 묘사되었다. 청학동에 대해 묘사한 유람록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은 방문한 유람 장소를 기술하는데 사용하고, 청학동은 문인들이 인지한 이상향의 장소로서 지리산 유람의 목적지였기 때문이다. 조위한의 「유두류산록」에는 네 가지 이상향이 모두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남원에서 은거하던 중에 화개동,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를 거치는, 청학동을 향하는 주요 경로를 유람하였던 결과라고 추정된다. 진주에 거주하며 남

명 조식 문하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던 박민의 「듀류산선유기」에는 묘사된 이상향이 없었다. 이것은 박민 역시 청학동에 이르는 하동, 악양,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를 유람하였으나 유람록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able 2. Utopian Types in Travel Records of Jirisan Mountain

연번	유람록의 명칭	이상향의 유형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	청학동
1	유두류록	○			○
2	지리산일과	○			○
3	듀류기행록				○
4	유두류록				○
5	듀류산기행록			○	
6	듀류산일록		○		
7	유두류산록	○		○	
8	방장산선유일기				○
9	듀류산선유기				
10	유두류산록	○	○	○	○
11	상쌍계신흥기행록			○	○
12	지리산청학동기				○
13	유두류산기	○			
14	듀류산기		○	○	○
15	유두류산기				○
16	듀류록	○		○	○
17	유두류일록	○	○		
18	유두류속록	○	○	○	
19	듀류록		○		
20	청학동록				○
21	듀류산유행록		○		○
22	유두류산록			○	
23	남유기	○		○	○
계(면)		9	7	9	14

2. 지리산 이상향의 유형별 경관

1) 무릉도원에 대한 묘사

중국 동진시대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기록한 무릉도원에서 복숭아나무 숲, 동굴 안쪽에 있는 넓고 확 트인 평평하고 기름진 땅, 연못, 뽕나무, 대나무,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는 주요 경관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지리산 유람록에 기술된 무릉도원의 가치는 '예컨대 신선들이 사는 곳이 아니면, 필시 도망쳐 온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 이곳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아닐 것이다(송광연)'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선이 사는 곳'에 있다. 나아가 '만약 닭·개·소·송아지를 끌고 이곳에 들어와 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개간하여 기장·찰벼·삼·콩 등을 심는다면 무릉도원보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김종직)'와 '산속 외딴 마을은 무릉도원인 듯 했으니, 집을 옮겨와 살 수 없음이 한스러웠다(조위한)'처럼 자신이 은거할 곳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전개된다.

문인들은 지리산을 본 뒤 자신이 알고 있던 중국의 이상향 '무릉도원이 진경이 아닌 줄 알았으며(김도수)', 청학동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쌍계사 앞에 '무릉계라는 명칭이 붙은 시내가 있다(조위한)'고 기록한 바와 같이 지리산 유람록에는 무릉도원으로 묘사된 다수의 장소가 등장한다. 다음 예시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학동 근방에 위치한 하동 화개동, 삼신동, 신흥사 마을 외에도 산청 단속사에서 덕산 가는 길에 마주친 양당과 남원 인월에 위치한 영대촌, 함양 소재의 용유담 하류 마을, 산청 법계사에서 덕산 가는 길에 위치한 살천 주변 마을이 무릉도원으로 묘사되었다.

- (화개동) 강을 따라 벼랑길이 나 있기도 하고, 돌길은 매우 험하며, 맑은 강에는 백석이 여기저기 있어서 좋아할 만했다. 산속 외딴 마을은 무릉도원인 듯했으니, 집을 옮겨와 살 수 없음이 한스러웠다. (入花開洞. 沿江遷路. 石逕巖巖. 清江白石. 處處可愛. 庵中孤村. 勢難桃源. 恨不得移家而來也.) (조위한)
- 삼신동에서 10리쯤 가자, 평평하고 넓은 동네가 나왔다. 촌락이 오밀조밀 붙어 있는데, 동쪽 마을을 미리라 하고, 서쪽 마을을 보리라 하였다. 협곡 안의 전원은 하나의 무릉도원이 나 다를 바 없었다. 다시 5리쯤 가니, 목통촌이 나왔다. 산은 굽이굽이 돌고 길은 다했으니, 이곳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신선들이 사는 곳이 아니면, 필시 도망쳐 온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 (還出三神洞. 行十里許. 洞府平曠. 村落稠密. 東曰彌羅. 西曰菩堤. 峽裏田園. 亦一桃源. 又行五里許. 至木通村. 山回路窮. 決非凡人所居. 若非僊侶. 必是逋民.) (송광연)
- 산은 더욱 기이하고 물은 더욱 맑았다. (신흥사 인근) 두서너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바위에 의지해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기도 했다. 우뚝한 산봉우리는 첩첩이 막혀있고, 대나무 숲은 싱그러웠다. 그 옛날 진나라 세상을 피해 숨은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어찌하면 이런 곳에 풀을 베어 터를 잡고 나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山益奇水益清. 數三村落. 或依巖架壑. 峰巒重阻. 竹林蕭灑. 有若昔時避世之秦民. 安得誅茅卜居於此中. 以送吾餘年耶.) (신명구2)
- 동구를 다 지나서 양당(壤堂)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집집마다 큰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감나무와 밤나무가 뒤덮고 있었다. 사람문이나 닭과 개들이 영락없이 무릉도원이나 주진촌(朱陳村: 중국 강소성(江蘇省) 풍현(豐縣)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백거이(白居易)의 <주진촌> 시에 등장한다. 깊은 산속에서 외부와의 왕래 없이 자급자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씨(朱氏)와 진씨(陳氏)의 마을이다.)인 듯하였다. (行盡洞口入一村. 曰壤堂. 家家戶戶. 鉅竹成林. 柿栗掩靄. 柴門鷄犬. 依然如武陵朱陳然.) (남효온)
- 골짜기에는 두세 집이 있는데 영대촌이라 하였다. 닭이 울고 개가 짖는 마을로, 깊은 골짜기와 슬한 봉우리들 사이에 있었

다. 참으로 하나의 무릉도원이었다. 이 마을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谷中有兩三人家 號 羸代村. 鷄鳴犬吠. 在幽谷亂峰之間. 眞一桃源也. 村之得名. 有以哉.) (유몽인)

- (용유담 하류) 촌락에는 반드시 논이 있었는데, 모두 비옥하고 넉넉하여 살 만한 곳이었다. 물은 비록 근원지이지만 물고기가 살아 작살질 할 수 있었다. 그러니 참으로 두보의 시에서 이른바 “무릉도원 사람들은 제도가 바뀌었고, 굴주의 눈은 그래도 기림지네”라고 한 것과 “땅이 궁벽하여 그물이 없고, 맑은 물엔 도리어 고기가 많구나”라고 한 것과 같다. 내 비록 무릉도원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 사는 생리가 또한 이와 같지 아니하겠는가. (此乃龍遊潭下流也. 村必有水田. 皆肥饒可居. 水則雖窮源. 亦有魚可叉. 眞杜詩所謂橋州田土仍膏腴. 水清反多魚者也. 未知武陵桃源. 人居生理亦如此否也.) (박장원)
- (살천 주변) 산은 더욱 높고 물은 더욱 맑았으며, 바위는 더욱 기이하고 장엄하였다. 동네 골짜기는 겹겹이 산으로 막혀 있는데, 그 형세가 아주 포위하여 감싼 듯하였다. 그 속에 한 마을이 있는데, 대략 20여 호가 살고 있었다. 온 산이 대나무 숲이고 대나무 울타리는 소슬하여 마치 무릉도원 같았다. (入薩川. 山益高峻. 水益清澈. 石益奇壯. 洞壑重阻. 勢甚圍抱. 中有一村. 約可二十餘戶. 滿山皆竹林. 籬落瀟灑. 依然若桃源.) (신명구1)

상기한 문장을 보면, 무릉도원의 경관은 첫 번째로 입지와 관련하여 우뚝한 산봉우리가 첩첩이 막혀있고(신명구2), 맑은 강에 기이하고 장엄하게 생긴 바위가 있고(신명구1, 조위한),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김종직) 깊은 산속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다. 두 번째는 겹겹이 산봉우리가 포위하여 감싼 깊은 골짜기 사이에(신명구1, 유몽인) 평평하고 널찍한 곳(김종직, 송광연)이어서 협곡 안에 마련된 넓고 평평한 터라는 공간 구조를 가진다. 세 번째는 마을의 집들(남효온, 신명구1, 유몽인)과 울타리(신명구1), 대나무숲(남효온, 신명구1), 감나무와 밤나무(남효온), 닭과 개(김종직, 남효온, 유몽인)로 구성되는 토속적 주거 경관과 향토식생이 무릉도원의 구성 요소다. 마지막으로 논(박장원), 밭(김종직), 물고기(박장원), 닭, 소, 송아지(김종직)와 같이 생리(生利)를 만족시키는 경물이 무릉도원의 경관을 만든다.

2) 별천지에 대한 묘사

‘별천지’는 중국 당(唐)나라 시선(詩仙) 이백(李白, 701-762)의 한시⁷⁾에 묘사된 ‘별유천지(別有天地)’의 개념에 의해서 속세를 떠난 경지이자 신선이 노닐었던 곳을 말한다. 경치나 분위기가 좋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골짜기가 깊고 봉우리는 우뚝 솟아 있으며, 시내와 폭포는 어지러이 물소리를 내며 옥설 같은 하얀 물보라가 흩날렸다. 모두들 정신이 저절

로 맑아지게 되니, 이른바 이곳 외에 별천지가 어디에 있으랴(황도익)’와 같이 별천지는 승경지가 강조된 선경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지리산 유람록에 기록된 별천지에 대한 묘사 중에서 쌍계동과 쌍계사, 불일암, 신웅동(신흥동)과 신웅사(신흥사), 방곡촌, 동당곡, 덕산서원(덕천서원) 주변에 실재하는 승경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점에서 쌍계사까지는 10여 리였는데, 산수의 빼어난 경관은 진정 세상 밖의 별천지 같았다. 시냇가 한 모퉁이에 있는데, 회강동이라 이름하였다. 바위와 골짜기가 매우 기이하고도 깊었다. (自酒店. 距雙溪. 十餘里. 山水之勝. 眞世外別區. 臨溪一曲. 名以會講洞者. 巖壑尤奇遠.) (신명구2)
- 무릉교를 건너 신흥동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골짜기가 깊어 별천지 같았으니, 옥빛 땅과 금빛 모래는 걸음걸음 볼 만했고, 옥색 못과 비취빛 물은 곳곳이 명승이었다. (渡武陵橋. 入神興洞. 洞深谷邃. 境異界別. 玉地金沙. 步步可翫. 瓊潭璧水. 處處皆勝.) (조위한)
- 신계촌에서 출발하여 15리를 가니(덕산서원 주변), 큰 산 아래에 깊은 골짜기는 굽이굽이 뻗어 내리고 시냇물은 평평하게 흘러내려, 바로 신선이 사는 별천지 같았다. (朝發新溪村. 行十五里. 則太山之下. 深谷逶迤. 川流平遠. 正是壺中天也.) (오두인)

살펴본 바와 같이 별천지가 승경지에 설정된 것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기원이 된 이상향의 관념이 전파된 결과 청학동이 승경지를 대변하는 지명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청학동이 만들어졌다는 연구⁸⁾를 통해서 정리된 바와 같다. 또한 별천지와 관련하여 ‘한동안 그곳에서 서성거리니 마치 호공(壺公)이 살던 별천지 같기도 하고, 물외의 빼어난 명승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정식1)’는 묘사는 중국 한대(漢代)에 선인(仙人) 호공이 항아리를 집으로 삼고 술을 즐기며 세속을 잊었다는 고사를 언급한 것이다. 항아리 속의 하늘이라는 ‘호중지천(壺中之天)’도 별천지·별세계·선경을 비유한 것이고 여기서 연유하여 별천지가 은거지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유람록의 기록이 있다.

- 마을은(거림골로 추정되는 무위암 인근 동당곡) 산 속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일전에 지나 온 대차리·살천 마을과 비교해 보면 이곳은 별천지이다. 마치 무리를 떠나 세상을 피해 숨은 자들이 고반(은둔)을 노래하고 물고기 잡고 뉘나무 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곳인 듯하였다. (午入東堂谷. 村在山中最深處. 觀日前所大次里薩川處. 更是別區正宜離塵世者之歌. 考樂而樂漁樵也.) (신명구1)

지리산 유람록에 묘사된 별천지의 구성 요소에는 입지를 결정하는 높은 산봉우리가 둘러싼 깊은 골짜기(신명구1, 신명구2,

조위한, 오두인), 승경을 형성하는 시냇물, 바위, 모래(황도역, 신명구2, 조위한, 오두인), 그리고 토속 경관을 이루는 마을 집들, 대나무 숲, 감나무 숲(박여량, 신명구1), 마지막으로 생리를 만족시키는 물고기 잡고 땔나무하기(신명구1)가 포함된다. '이 마을의 집들은 모두 대나무를 등지고 감나무가 둘러 있으며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정경이 흡사 하나의 별천지였다(박여량)'로 묘사되었다.

3) 동천에 대한 묘사

동천에서 '洞'은 골, 골짜기이며, 여기서 파생하여 마을, 동네라는 뜻을 가진다. 지리산 유람록 원문에 표현된 '동부(洞府)', '동학(洞壑)'이 동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의(字意)로 보면, 동천은 '낙원과 같은 골짜기, 혹은 마을'로서 '신선이 사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천은 1251년 이규보의 시에서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한 신선이 정한 집'으로 묘사되었으며,⁹⁾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사람의 자취가 드물게 이르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자가 숨어사는 곳'¹⁰⁾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Lee, 2010: 16). 동천이 십산계곡이 발달한 한반도의 지형 특색을 배경으로 하여 현실에 구현된 이상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선 현종 때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자연의 형세는 매우 험하다. 산이 서리고 물이 휘감고 있어 양의 창지처럼 굽이굽이 돌고 새만이 날아 넘을 수 있는 험한 고개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동천과 복지가 많다. 중국의 무릉도원이나 휘이초곡과 같은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당나라 두광정이 지은 「동천복지기」에 36동천과 72복지가 있다고 되어 있다. 중국은 천하의 큰 나라인데, 이른바 동천·복지가 어찌 그리 적단 말인가? (海東形勢險阻, 山盤水廻, 無非羊腸鳥道, 故間多洞天福地, 如中原武陵桃源, 微纔多樵貴者, 不可一二道也, 唐杜光庭著《洞天福地記》有三十六洞天七十二福地以天下之大 其所謂洞天福地 一何少也.)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제35권 「청학동 변증설(靑鶴洞辨證說)」(Choi et al., 2000: 364)¹¹⁾

지리산 유람록에는 '두류산을 돌아보니 벌써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멀리 백무동천을 생각해보니 어딘지 아득하기만 했다(양대박)'와 '석문을 나온 뒤 다시 무릉계를 건너 신흥동으로 들어갔다. 신흥동천은 골짜기는 넓었으며, 흰 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양경우)'에서 동천으로 이름 붙여진 백무동천과 신흥동천이라는 지명이 소개되었다. 이밖에도 동천은 화개협, 불일암, 불일폭포, 신흥사, 내원암, 칠불암, 원정동과 같은 승경지의 일정한 영역을 한정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다음 예시문을 보면, 동천은 좁은 길에 대비되어 트인 위요된 지형 특성을 가진다.

- 화개협에서 법화탄을 지나 거석교를 건너니, 동천이 매우 깊숙하고 맑아 산을 절반도 채 오르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상쾌해졌다. (由花開峽, 過法華灘, 渡攀石橋, 則洞天深巖清絕, 入山未半, 自不覺胸次之爽然.) (오두인)
- 그곳을 지난 뒤에는 길이 더 험하였다. 꼭대기로 기어오르니 확 트인 하나의 작은 동천(불일암)이 열렸다. (既歷重險, 而陟其巔, 則曠然闢一小有洞天.) (이주대)
- 수없이 울리는 천둥처럼 우렁찬 소리가 동천 안(불일폭포)으로 쏟아지며 내리치니, 참으로 천하의 장관이었다. 송악산의 박연폭포와 자웅을 겨룰 만하였는데, 골짜기의 기이하고 웅장함은 박연폭포보다 더 나았다. (如千雷萬霆, 奔薄闢擊於洞天之中, 眞天下之壯觀也, 直與松岳朴淵, 爭爲甲乙, 而洞壑之奇壯, 朴淵亦不得及焉.) (조위한)
- (불일폭포) 뒷산을 넘어 보문암을 지나 몇 리를 가서 내원암에 이르렀다. 문루를 새로 지었는데, 동천도 기이하고 빼어나다. (佛日庵, 千丈飛瀑, 踰後山, 歷普門庵, 行數里到內院, 新構門樓, 洞壑亦奇勝.) (송광연)
- 동천(칠불암)이 넓고 특 트여 더욱 별천지처럼 보였다. (望七佛菴, 洞天曠闊, 益別境也.) (김도수)
- 이 연하동천(신흥사)에 앉아 있으니, 인간 세상의 속된 생각이 말끔히 사라짐을 문득 느꼈다. (坐此煙霞洞府, 世間一種塵念, 斗覺消盡.) (신명구2)
- 골장 3-4리를 가서 원정동에 닿았다. 동천이 넓게 열려 있으면, 갈수록 경관이 아름다웠다. (徑行三四里, 至圓正洞, 洞天弘敞, 去去加勝.) (유몽인)
- 이곳에서 40리를 가면 동천이 나오는데, 안은 매우 깊숙하고 어두우며 특별히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此行四十里, 蓋有一洞府, 而中甚邃黑, 別無可觀云.) (김도수)

4) 청학동에 대한 묘사

지리산 유람록에서 '석문 밖 3-4리쯤 못 가서 동쪽에 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안에 청학암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옛날의 청학동인 듯합니다. 성문 안 쌍계사 안쪽을 청학동이라고 여긴 것은 아닐까? 쌍계사 위 불일암 아래에도 청학연이란 곳이 있으니, 이곳이 청학동인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남효온)'로 묘사되었다. 청학동이 묘사된 예시문에서 청학동을 구성하는 경관 요소를 추출한 결과, 불일암이 입지한 깎아지른 석벽을 만드는 향로봉, 청학봉, 완곡대라는 지형 요소와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불일폭포, 학연, 용추로 구성된 수경요소가 정리되었다. 또한 소나무, 대나무, 단풍나무, 삼나무¹²⁾, 노송나무, 측백나무로 이루어진 식생경관 요소가 청학동에 깊은 숲을 만든다. 여기에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최치원의 설화와 '삼선동'이라는 바위글씨, 그리고 구름과 안개와 같은 기상 현상이 더해져 청학동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완성시켰다.

- 해공이 또 악양현의 북쪽을 가리키면서 청학사동이라고 하였

다. 아, 이것이 옛날에 이른바 신선이 산다는 곳인가 보다. 해공이 또 그 동쪽을 가리키면서 쌍계사동이라고 하였다. 최고운이 일찍이 이 곳에서 노닐었으므로 각석(刻石)이 남아 있다. 깊고 그윽한 계산의 지경은 모두 그가 유력한 곳이었으니, 세상에서 그를 신선이라 칭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又指岳陽縣之北曰. 青鶴寺洞也. 噫. 此古所謂神仙之區歟. 又指其東曰. 雙溪寺洞也. 崔孤雲嘗遊于此. 刻石在焉. 溪山幽闌之地. 皆其所遊歷. 世稱神仙. 無愧矣.) (김종직)

- 험준한 고개 하나를 오르니 벼랑 사이에 암자 하나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으며, 아래로는 가늠할 수 없는 골짜기였으니, 이른바 청학동과 불일암이었다. 벼랑을 부여잡고 나아가 암자 앞에 이르니, 붉은 벼랑과 푸른 병풍 같은 산이 천 길 절벽처럼 서 있고, 두 개의 봉우리가 빼어나게 솟아 좌우로 마주보고 있었다. 동쪽에 있는 것이 향로봉이고, 서쪽에 있는 것이 청학봉이다. 봉우리의 허리에는 층층의 바위들이 매우 기이하였다. (登一峻嶺. 望一小菴寄在懸崖之間. 下臨不測之洞. 所謂青鶴洞也. 佛日菴也. 緣崖而行. 至於菴前. 丹崖翠屏. 壁立千仞. 雙峰秀出. 相對左右. 在東曰香爐峰. 在西曰青鶴峰. 峰之腰. 層巖甚奇.) (오두인)
- 완폭대는 1백 척이나 되는 낭떠러지 위에 있고, 동쪽에는 폭포가 떨어진다. 그 앞으로 폭포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완폭대라고 한다. 폭포가 흘러내려 학연이 되고, 학연의 아래에 용 추가 있다. 완폭대 아래에 실갈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나무를 부여잡고 곧장 내려가 이끼를 끊어내면 '삼선동' 석 자가 바위 면에 새겨져 있다. (臺臨百尺. 東有瀑布. 有流過臺前. 故謂之龍瀑. 瀑之流下而爲鶴淵. 鶴淵之下. 有龍湫. 臺之下. 有線路. 攀緣直下. 刮剔苔封. 則三仙洞三字. 刊在石面.) (성여신)
- 불일암 앞 대의 석벽 위에 이르러 남향해 서면 바로 청학동이 내려다보인다. 돌로 이루어진 골짜기에 깎아지른 암석들이 우뚝 서 있고, 암석 위에는 소나무·대나무·단풍나무가 많이 있다. (至佛日前臺石壁上. 南向立. 乃俯臨青鶴洞. 石洞巖巖. 巖石上. 多松多竹多楓.) (허목)
- 그 아래에 동네가 있는데, 청학동이라고 부른다. 깊은 그늘이만 길이나 되어 그 밑을 볼 수 없었다. 소나무·삼나무·송나무·측백나무 등이 우거져 어두침침하여 단지 뿌연 운기만 보일 뿐이었다. (其下有洞. 名曰青鶴洞. 陰沈萬仞. 不見其底. 松杉檜柏. 闇昧冥漠. 但見雲霞晦濛而已.) (조위한)

청학동의 선경은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이상향의 전형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규경은 '청학동은 우리나라의 작은 한 골짜기에 불과한데, 천하에 이름이 나게 되었다. [중략] 대체로 우리나라는 비경(秘境)으로 이름난 곳이 매우 많은데, 청학동이 유독 세상에 이름이 났다(Choi et al., 2000: 371)'라고 기록하였다. 지리산 유람록에는 불일암 일대 승경 묘사를 위해 예시문에서 볼 수 있는 신선 세계와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 봉우리는 깎아 세운 듯이 높았다. 모두 벌여 앉아 있다가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눕기도 하고, 늘어서 있다가 소나무 가지를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표연히 낭풍(신선이 사는 곳)에 올라 신선 세계에 가까이 온 듯하고, 공동(신선이 사는 산)에 올라 광성(공동산에 사는 신선의 이름)을 방문한 듯하였다. (峰之高如削立. 諸君列坐而或枕松根. 羅立而或挽松梢. 飄然若登閭風而近帝居. 上峭峒而訪廣成矣.) (성여신)
- 천봉만학의 괴이한 나무와 기이한 바위가 구름과 노닐어 일었다 걸히는 사이에서 숨었다가 드러나곤 했다. 정신이 서늘해지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홀연히 신옹(신선)과 우객(날개가 있는 신선)을 만난 것 같았으니, 참으로 신선의 세계였다. (千峰萬壑. 怪樹奇岩. 或隱或現於雲霞卷舒之間. 淒神稟骨. 悄愴幽邃. 恍然與神翁羽客相遇. 眞仙界也.) (양영우)
- 완폭대에 앉으니 위치가 더욱 높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외롭게 느끼었다. 옥빛처럼 푸른 뱀바리와 비단결처럼 펼쳐진 골짜기가 아름다움을 다투며 시선을 끌어당겨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으니, 진실로 신령과 진인이 사는 은밀히 간직된 곳이었다. (坐玩瀑臺. 地位益高. 孤巖與人實迥隔. 瓊岡綺岫. 競秀爭華. 奪人眼目. 信是靈眞之所窟宅. 天地之所秘藏也.) (황도익)
- 노새만한 산양이 향로봉 꼭대기에 한가히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비파와 피리 소리를 듣고서 귀를 기울이며 서성이고, 사람을 보고서도 피하지 않았다. 아, 금화산의 신선(한나라 때 신선 적송자)이 기르던 짐승으로 흰구름 속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한가로이 잠을 자다가 감히 이곳에서 당돌하게 나로 하여금 양 타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한단 말인가? (忽有山羊如驢子. 大閑臥香爐峰頂. 聞琵琶長笛之聲. 傾耳彷徨. 見人不避. 吁. 金華仙客之所牧. 閑眠白雲今幾年. 而乃敢於此唐突. 欲使我學騎羊子耶.) (유몽인)
- 만고의 신선들이 노니는 이곳에서 운보 같은 시인을 만나 함께 놀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통소 소리까지 곁들였으니, 신선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쉽게 얻을 수 있었는가? 마치 요지(신선이 사는 상상의 연못)에서 신선의 음악을 들은 듯하여 온갖 염려가 다 녹아 없어지니 세상의 소식은 어찌한지를 알지 못했다. (地是萬古仙區. 而得此文人而遊. 兼以雙簫之美. 苟非有仙分者. 豈易易得之. 如聞瑤池仙樂. 而萬慮都消. 不知世間消息何如也.) (정식2)
- 늙은이가 진경 찾아 너무 늦게 왔지만, 학의 자태 원숭이가 울소리 응당 없지 않으리. 청아한 옥피리 소리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밤 깊으면 푸른 학이 울는지 안 울는지? (白首探眞今已晚. 鶴情猿怨未應無. 吹澈玉簫人不見. 夜深青鶴正來無.) (정식2)

신선이 사는 곳과 관련된 '낭풍', '공동', '금화산', '요지'와 신선을 일컫는 대상으로서 '신령', '진인', '신옹', '우객', '광성', '적송자'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신선의 음악'으로 비파, 통

소, 피리 소리, ‘학’과 ‘원숭이’, ‘산양’이 신선 세계와 관련되어 청학동의 절경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인들이 현실 세계에 대한 탈출구나 이상향으로서 선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지리산을 유람한 목적과 관련된다. 신비스러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하면서 신선을 연상하여 신선고사(神仙故事)를 인용하게 되고 스스로 신선이 되는 감흥을 갖게 되는 것이다(Kim and Chin, 2002: 87).

3. 실현된 지리산 이상향, 문인들의 은거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인들은 중국 문화로 전래된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의 개념을 지리산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지리산에 설정된 ‘청학동’을 방문함으로써 신선 세계를 경험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지리산에 은거하여 이상향을 실현하고 싶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은거를 회구하는 내용, 유람 중 마주친 아름다운 민촌을 은거지로 인지한 내용, 실제 지리산에 자리 잡은 문인들의 은거지에 대한 묘사로 구분하고, 이것으로 실현된 지리산의 이상향을 고찰하였다.

1) 문인들의 은거지에 대한 갈망

유몽인과 양경우는 자연 속 은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황도익은 은거를 실행하지 못함을 탄식하였으며, 양대박은 이번 유람으로 자신의 은거지를 정했다.

- 내 발자취가 미친 모든 곳의 높낮이를 차례 짓는다면 두류산이 우리나라 첫 번째 산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인간 세상의 영리를 마다하고 영영 떠나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면, 오직 이 산만이 편히 은거할 만한 곳이라. 조만간 허리에 찬 긴 끈(수령의 직책)을 풀고 내가 생각한 애초의 일을 이루리라. 물소리 조용하고 바람소리 한적한 곳에 작은 방 한 칸을 빌린다면, 어찌 유독 고흥의 옛집에서만 나의 지리지를 쓸 수 있으랴. (攀余足跡所及者。第其高下。頭流爲東方第一山無疑。如欲謝人間榮利。長往而不返。惟此山可安菟裘。朝夕解腰間長組。以遂吾初服。苟借一間方丈於泓靜蕭瑟之境。豈獨高興舊貫可志我興地哉。)(유몽인)
- 돌아가면 벼슬을 버리고 일에서 물러나 백운이 서린 산수에서 노년을 보내며, 나막신과 죽장으로 이 산의 봉우리와 골짜기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내 소원을 풀어야겠다. (行當投紱謝事送老白雲之邊。棕鞋竹杖。遍尋此山之峰壑。以畢余志焉。)(양경우)
- 이 산속의 빼어난 경치는 여기(세이암)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은거할 곳을 찾아 깊은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기약을 맺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랴! (山中之勝。至此而極矣。雖欲尋考槃之地。結幽棲之約。而不可得。何。)(황도익)
- 사담 근처에다 터를 잡은 일은 내가 전에 열 번이나 오가면서

도 얻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문득 얻게 되었다. (至於蛇潭之卜居。余嘗十往來未得者。而今忽有之。)(양대박)

2) 살 만한 곳으로 인식된 지리산의 민촌

문인들은 유람 중 탄촌, 단속사 마을, 화개, 실덕탄, 덕산사, 덕천서원이 있는 마을을 발견하고 다음 예시문과 같이 살만한 곳으로 인식하였다.

- 돌아서서 동네(단속사 마을)를 바라보니, 물이 감싸고 산이 에워싸서 집터는 그윽하고 지세는 아늑하였다. 참으로 은자가 살 만한 곳이었다. 대나무 울리리틀 한 띠집과 피어오르는 연기와 뿜나무 발이 보였다. 시내 하나를 건너 1리를 가니 갈나무가 접점이 둘러 있고, 산에는 모두 뿜나무뿐이었다. (回望則水抱山圍。宅幽而勢阻。眞隱者之所盤旋也。見其竹籬茅屋。煙火桑柘。渡一溪進一里。桄榔環匝而山之木。皆栗也。)(김일손)
- 산이 북쪽에서 뻗어 내리다 우뚝 솟아 세 봉우리가 된 곳이 있었다. 그 아래 겨우 10여 호쯤 되는 민가가 있었는데, 탄촌이라고 하였다. 그 앞에 큰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살 만한 곳입니다. 앞으로 5-6리를 더 가니 대숲 속에 오래된 절이 있었는데, 암천사라고 하였다. 토지가 평평하고 넓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다. (有山自北而斗起爲三峯。其下居民僅十數屋。名曰炭村。前臨大川。伯助曰。此可居也。余曰。文筆峯前。尤可卜也。前行五六里。篁竹林中。有古寺曰巖川。土壤平廣。可以廬其居也。)(김일손)
- 바닷물이 이곳까지 드나들었고, 고기잡이배와 상선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살기 좋은 곳이 여기(화개)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海潮出入於此。漁航商舶。往來不絕。可想生居之樂。無踰於此土也。)(신명구2)
- (덕천)서원은 두 시내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운은 웅장하고 경관은 그윽하여 은자가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則院臨兩川交會之處。氣雄境幽。最宜隱者盤旋之地。)(이주대)
- 절터와 계담암석이 매우 볼만하였으나, [중략] 여기서부터 (덕산사) 아래로는 수석이 그윽하고 빼어나, 연못이나 폭포에서 물고기 잡으며 노닐거나 깃들여 살 만한 곳이었다. (有德山寺。古基溪潭巖石。極可玩。……自此以下。水石幽絕。或淵或瀑。無非釣遊棲止之地。)(신명구1)
- 실덕탄의 좌우에 실덕·마촌·궁항 등의 마을이 있었다. 곳곳에 갈나무가 서 있는데, 감이 한창 익어 산골짜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산 속에 사는 백성들이 이 감을 따서 생계를 꾸려간다. (灘之左右。乃實德馬村弓項等村也。處處楠木。結子方紅。照耀明谷。山內之民以是而資生。)(박여량)

여기서 문인들이 인식한 은거지의 조건을 추출하면, 풍수지리적 입지를 대표하는 배산임수형 지세, 교역이 가능한 하천,

대숲으로 위요된 평평한 토지, 감나무·밤나무·팽나무와 같은 유실수 위주의 식생 등 생리 조건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까지 더해진다. 이것은 이중환이 『택리지』에 제시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는 가거지 조건과 일치한다¹³⁾. 따라서 지리산이 가거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규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두류산 골짜기의 동에는 주위를 둘러싼 산세가 깊고도 크다. 토질이 두텁고 비옥하여 온 산이 사람이 살기에 모두 알맞다. 산 안에는 백리나 되는 긴 골짜기가 많은데, 왕왕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국기에 새금을 내지 않는 곳도 있다. 땅이 남해에 가까워 기후가 따뜻하다. 산 속에는 대나무가 많으며 감나무와 밤나무도 많다. 이런 나무들은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꽃이 피었다가 진다. 높은 봉우리 위에서도 서숙(黍粟)을 거두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 없다. 힘들여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넉넉하다. (頭流洞府. 盤互深鉅. 土性肉厚膏沃. 一山皆宜人居. 內多百里長谷. 往往有人所不到處. 不應官稅. 地近南海. 氣候溫暖. 山中多竹. 又多柿栗. 自開自落. 撒黍粟於高峯之上. 無不茁茂. 村居與僧居相離. 農功不勞而周足.)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제35권 「청학동 변증설(靑鶴洞辨證說)」¹⁴⁾

고려시대부터 지리산지 토착민, 승려 및 영호남 문인들에 의해 선경·복지라는 장소 이미지로 인지되었던 지리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민중들이 정치사회적 혼란과 피폐한 생활상을 피하기 위하여 청학동 인근의 의신, 덕평, 세석, 묵계 등지에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Choi, 2009). 이것이 문인들이 이상적 거주지라고 보았던 지리산의 민촌이 형성된 배경이다.

3) 지리산에 입지한 문인들의 은거지

가거지 조건을 갖춘 지리산에는 최치원 이후 고려말 한유한(韓惟漢), 조선시대의 정여창(鄭汝昌, 1450~1504) 등 은거한 문인들이 많았다¹⁵⁾. 지리산 유람록에는 변사정, 노진, 최운, 김성운, 하숙부, 최함씨의 은거지가 묘사되었다. 여기에는 산을 등진 작은 시냇가에 터를 잡은 입지 조건과 연못을 만들고 집 주변에 선비가 좋아하던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와 복숭아 나무, 버드나무를 심고 즐긴 정황이 드러나 있다.

- (변사정의) 은거지는 대나무 울타리에 떠집이었고, 복숭아나 무버드나무가 즐지어 있었다. 곁에 초라한 몇 채의 민가가 있었는데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 완연히 진나라 때의 풍속(무릉도원) 그대로였다. 이곳은 초막이 잘 어우러진 산간마을, 곡식이 잘 자라는 토양, 과일이 잘 되는 밭, 고기잡이하기에 제격인 시냇가 있다. 참으로 넉넉하고 한가로운 동네로 한적한 물가에 위치하여 은자가 노닐 만한 곳이었다. (訪邊山人. 隱處. 竹籬茅舍. 桃柳成行. 傍有數家荒店.

鷄鳴犬吠. 宛然秦餘俗矣. 大凡山宜廬. 土宜粟. 園林宜果. 溪澗宜漁. 眞寬閑之境. 寂寞之濱. 而隱者之所盤旋也.) (양대박)

- 옛날 옥계 노진 선생이 자손들을 위해 지은 것이다. 선생도 봄날의 꽃구경과 가을날의 단풍놀이를 하러 왔으며, 흥이 나면 찾은 것이 여러 번이었다. 아,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속 외딴 곳에 자제들을 위해 집을 짓고 거처하게 했으니, 선생의 깨끗한 지취는 후학을 흥기시킬 수 있겠구나. (昔盧玉溪先生禪爲子孫營之. 先生亦於春花秋楓. 乘興往來者數矣. 吁. 山深境絕. 一鳥不聞. 而爲子弟築室而居之. 先生清致. 可以起後學也.) (유몽인)
- 정오 무렵 섬진강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 와룡정에서 쉬었다. 이 정자는 생원 최운의 장원이었다. 큰 둔덕이 강 속으로 뻗어 마치 물결을 갈라놓은 것 같았다. 말을 타고 반석 위로 나아가니 숨을 타놓은 듯한 수백 보의 백사장이 보였다. 그 둔덕 위에 초당 서너 칸을 지어놓고 비취빛 대나무와 검푸른 소나무를 주위에 심어놓았다. 그림 같은 풍광이 둘러쳐져 초연히 속세를 떠난 기상이 있었다. (亭午傍蟾江而西. 歇馬于臥龍亭. 亭卽生員崔蘊庄也. 大堆入江心. 如截滄波. 駕出盤石上. 重以白沙如拭綿數百步. 構草堂三四間於其上. 衛以翠竹蒼松. 匝以圖書. 有蕭瑟出塵之象.) (유몽인)
- 김성운이 은거하는 곳(진주담)이다. 천석의 빼어남은 여래가 지나온 곳 가운데 으뜸이었다. 자못 산 속에 사는 예스러운 정취가 있었다. (夕到眞珠潭. 卽金聖運幽居也. 泉石之勝. 甲於所經. 頗有山居古色.) (정식1)
- 오대사를 지나 또 부윤(府尹) 하숙부의 집을 들렀다. 집이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하였으며 채소밭이 앞에 일구어져 있고 대나무 숲이 두루 펼쳐졌으니, 중장릉(후한(後漢) 때의 사람으로, 공명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한가히 노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낙지론>을 지어 자신을 뜻을 밝혔다.)이 <낙지론>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過五臺. 又過河府尹叔孚宅. 宅背山臨流. 場園築前. 竹林周布. 仲長統所稱樂志篇無異也.) (남효온)
- (최함 씨의) 제당은 작은 시냇가에 있는데 시냇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매화나무·대나무·소나무·국화가 그 주위에 가득했다. (堂臨小溪. 因溪爲池. 詩以梅竹松菊盈階焉.) (박여량)

4. 지리산 이상향의 경관 특성

1) 지리산 이상향 분포와 입지 특성

지리산 유람록에는 문인들이 유람 경로를 따라가며 방문한 장소에 대한 기술이나 지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장소 이외의 일부 옛 지명은 유람록의 전후 문맥과 유람 여정, 원문에 제시된 거리척도를 기준으로 비정하였다. 그 결과로 다섯 가지 이상향으로 지칭된 장소들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Figure 1으로 도면화하였다.

이상향의 분포를 고찰하여 지리산 이상향의 입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상향과 관련된 장소가 화개,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 칠불암 영역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일대에 당시 문인들이 청학동이라고 인식한 불일암과 불일폭포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으로 묘사된 마을과 사찰, 그리고 정여창의 은거지까지 모든 유형의 이상향이 설정된 결과이다. 그밖에 지리산으로 진입하는 산청, 함양, 인월, 구례 등 주변 고을에 문인들의 은거지가 분포한다. 가장 큰 특성은 하천 인근에 소재한 마을, 사찰, 승경지에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이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즉, 쌍계사와 불일암 등은 섬진강 화개천, 덕산서원, 양당, 살천 마을은 남강 상류 덕천강(德川江), 그리고 탄촌, 용유담, 실향탄, 영대촌은 임천강(瀾川江)에 위치한다. 이로써 협곡과 하천이 발달한 지리산의 지형에서 기인한 이상향의 입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지리산 이상향의 유형별 개념과 경관 특성

문인들이 가졌던 신선 세계에 대한 갈망이 무릉도원, 별세계, 동천, 청학동, 은거지라는 다섯 가지 이상향으로 묘사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리산 이상향의 경관을 종합하기 위하여 이상향을 기술한 문장에서 추출한 경관 요소들을 크게 자연 경관 구성 요소와 인문경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자연경관 구성 요소는 지형 요소, 식생 요소, 동물 요소라는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상향별로 묘사된 경관 요소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상향의 유형별 경관 요소 분포를 보면, 무릉도원과 별천지의 경관 요소는 동일하게 지형 요소, 식생 요소, 동물 요소 등 자연경관 구성 요소에 집중된다. 동천은 천연적인 지형 요소로 구성되지만, 청학동의 경관 요소는 항목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또한 은거지는 대부분의 경관 요소들을 포괄함으로써 나머지 네 가지 이상향의 경관 요소들을 만족시키는 이상향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자연경관 구성 요소 중에서 지형 요소는 승경 기능에 집중되고, 식생 요소는 승경과 생리를 만족시키는 경관 요소들로 구분된다. 또한 선경과 관련된 원숭이와 학을 제외한 동물 요소와 인문환경 구성 요소의 대부분은 생리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종합하면, 지리산 이상향은 지리산을 특징짓는 자연이 제공하는 승경지에 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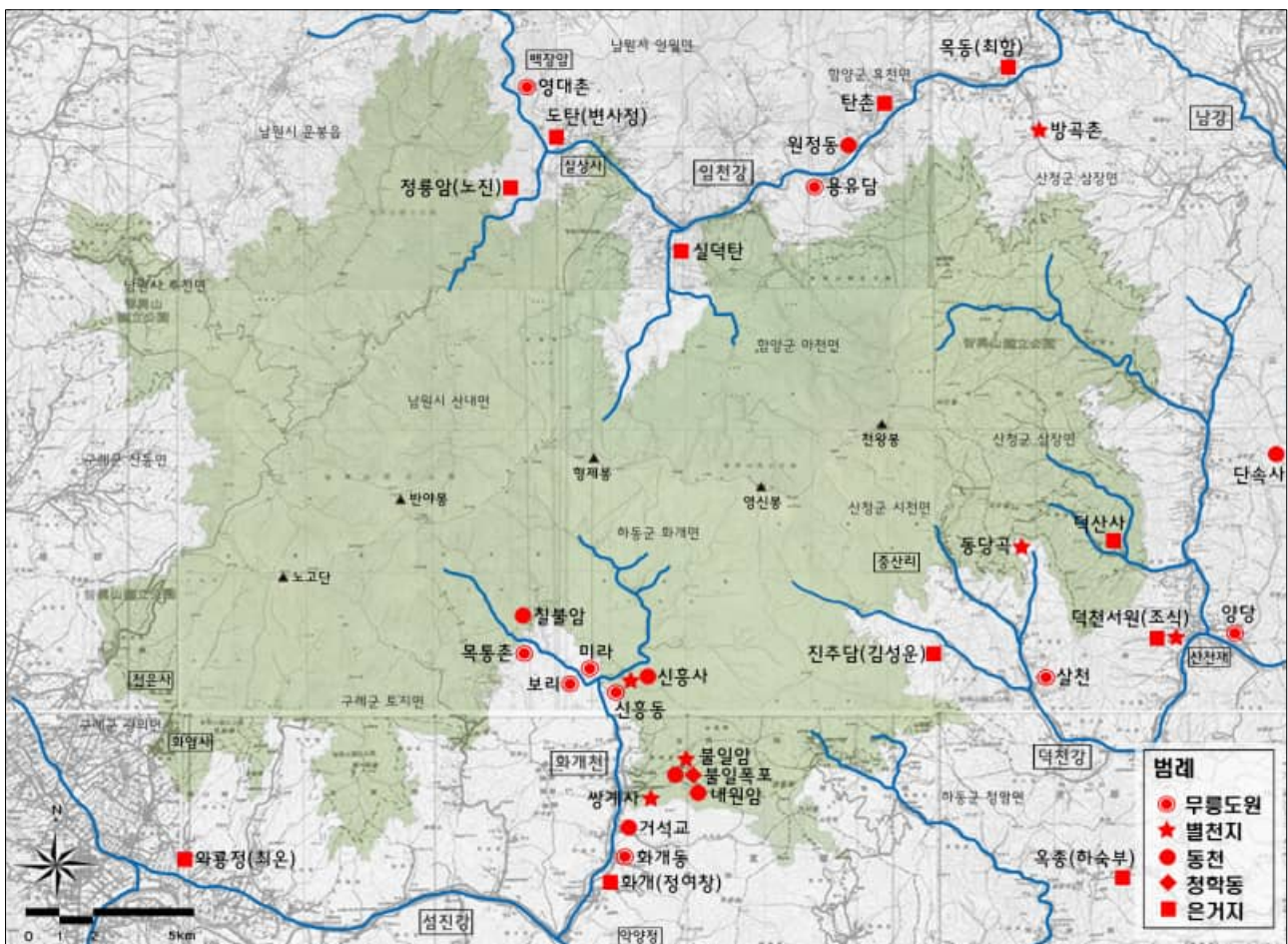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Chart of the Utopia in Jirisan Mountain

Table 3. Landscape elements of the utopia in Jirisan Mountain

구분	경관 요소	이상향의 유형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	청학동	은거지
자연 경관 구성 요소	지형 요소	산봉우리, 대	○		○	○
		협곡, 골짜기	○	○	○	○
		(호리병 모양) 평지	○	○		○
		하천, 시내	○			○
		폭포, 계담(溪潭)		○	○	○
	식생 요소	천석(泉石), 반석	○	○		○
		대나무숲	○	○	○	○
		감나무, 밤나무	○	○		○
		뽕나무밭				○
		소나무			○	○
		단풍, 노송, 측백, 삼나무			○	
		복숭아나무, 매화, 국화				○
	동물 요소	버드나무				○
		개, 닭	○	○		○
		소, 송아지				
		물고기	○	○		○
		학, 원숭이			○	
인문 경관 구성 요소		산양			○	
		촌락, 주거지	○	○		○
		논, 밭	○			○
		사찰, 암자		○	○	○
		서원, 정자, 조정				○
		배, 상선				○
		연못				○
		대나무 울타리	○			○
		각자(바위글씨)			○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을 조성한 토속 경관이라고 정리된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통해서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이상향의 유형별 개념 특징을 정리하였다. 먼저 문인들은 중국에서 유래한 무릉도원을 이상향의 원형으로 이해하였으며, 지리산 협곡 안쪽 전원에 자리 잡은 민촌을 무릉도원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무릉도원을 대표하는 복숭아나무 대신 향토수종인 대나무숲이 강조되고, 무릉도원과 관련 없는 감나무와 밤나무, 물고기와 닭이 묘사된 것은 생리를 만족시키는 우리나라 토속 경관을 대입시킨 결과이다. '별유천지'에서 기인한 별천지는 승경지가 강조된 특성을 지닌 이상향이며, 동천은 은일에 적합한 위요된 지형 구조로 승경지의 일정한 영역을 한정하고 개별 공간에 이름을 붙인 이상향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전래된 세 가지 이상향이 지리산 일대의 아름다운 공간을 지칭하는데 적용된 것과 달리 지리산에 설정된 청학동은 우뚝 솟은 석벽과 깊은 골짜기의 폭포, 기상 현상이 어우러진 신비스러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바위글씨¹⁶⁾와 최치원의 설화가 더해져 만들어진 이상향이다. 문인들은 더 나아가 이상향을 현실에 구현한 결과로서 은거지로 인식하였으며, 은거지는 배산임수형 지세, 교역이 가능한 하천, 대숲으로 위요된 토지, 유실수 위주의 향토 식생, 아름다운 경관 등 가거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연

못을 만들고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등을 심어 즐기는 곳으로 표현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향토수종과 산촌의 토속 경관이 강조된 무릉도원, 지리산 수석이 돋보이는 승경지에 설정된 별천지, 은일에 적합한 승경지의 영역을 한정하고 이름을 붙인 동천, 신비로운 경관에 설화가 부가되어 설정된 청학동과 가거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에 이상향을 실현한 은거지라는 지리산 이상향의 개념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지리산 유람록 23편을 분석하여 문인들이 지리산에서 인식한 이상향의 경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지리산 유람록을 통해서 무릉도원, 별천지, 동천, 청학동이라는 전통적 이상향 네 가지를 동시에 비교·고찰하고, 문인들이 구체적 장소를 묘사하며 선택한 이상향별 개념과 경관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2. 조선시대 문인들이 방장산으로 불리던 지리산에서 꿈꾼 신선 세계는 중국에서 유래한 무릉도원에서 연유하지만, 지리산의 무릉도원은 신비감을 주는 자연성을 간직한 깊은 산속,

협곡 안에 마련된 넓고 평평한 터, 향토 식생과 산촌의 토속 경관, 생리를 만족시키는 우리 풍토 조건이 반영되었다.

3. '별유천지'의 별천지는 지리산 유람록에서 쌍계사, 불일암, 신흥사, 방곡촌, 동당곡, 덕산서원 주변의 승경지 묘사에 사용되었다. 즉 별천지는 승경 개념이 강조된 이상향이다.

4. 동천은 은일에 적합한 위요된 지형 구조를 가진 곳에 백무동천과 신흥동천 등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화개협, 불일암, 불일폭포, 신흥사, 내원암, 칠불암, 원정동이라는 승경지의 일정한 영역을 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5. 지리산 유람록에서 문인들은 청학동의 승경을 신선이 사는 곳, 신선을 지칭하는 용어, 신선의 음악, 학, 원숭이, 산양 등으로 묘사하여 탈속적 선취(仙趣)를 즐겼다. 지리산에 설정된 청학동은 불일암 일대의 협곡과 폭포가 만드는 신비스러운 자연경관과 소나무, 대나무 등 식생경관, 그리고 최치원의 설화와 바위글씨가 전승되면서 완성되었다.

6. 문인들은 탄촌, 단속사 마을, 화개, 실향탄, 덕산사, 덕천서원 마을을 이상적 은거지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배산임수형 지세, 교역이 가능한 하천, 대숲으로 위요된 평평한 토지, 유실수 위주의 식생,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조건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당시 문인들이 지리산이 가거지에 적합한 산세, 토질, 기후, 먹거리를 만족시켰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7. 지상에 실현한 이상향으로서 지리산에는 변사정, 노진, 최온, 김성운 등 문인들의 은거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산을 등진 작은 시냇가에 터를 잡고 연못을 조성하며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를 심고 즐겼다. 지리산의 은거지는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노동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인간 세상의 모습이다.

8. 문인들이 인식한 지리산 이상향의 장소는 청학동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화개천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덕천강과 임천강 등 지리산의 협곡과 하천이 만든 승경지에 터를 잡고 생리를 만족시키는 거주 환경을 가진 곳이다.

- 주 1) 『파한집(破閑集)』, 제1권 「지리산유람기록(智異山遊覽記錄)」
- 주 2) 16~17세기에 지리산 유람록을 기록한 변사정, 양대박, 양경우는 전라도 남원에 살던 사인(士人)이었고, 성여신과 박민은 진주에 살던 재야 사족으로서 이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집권 세력과 뜻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8세기에 유람록을 창작한 신명구, 정식, 황도익, 이주대도 정치권에서 밀려난 사족들이다(Cho et al., 2000: 388~389).
- 주 3) 산수 기행문은 다양하게 불린다. 실제 작품에 나타난 '유○○산기', '유○○산록', '遊記', '遊錄', '山水記' 이외에도 '기행록', '기행문'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람록'으로 지칭한다.
- 주 4) 『지리산과 유람문학』 부록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전반기, 17세기 후반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구분된 유람록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Choi et al., 2013: 417~423).
- 주 5)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2000)』 - 15~17세기, 『지리산 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2008)』 - 15~18세기,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2009)』 - 18~19세기,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4(2010)』 - 18~19세기,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5(2013)』 - 19~20세기,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6(2013)』 - 20세기

- 주 6) 두보, 『奉贈太常張卿柏二十韻』이라는 시의 첫 구이다(Choi et al., 2013: 27).
- 주 7) 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산중문답(山中問答)」)
- 주 8) 함경북도 8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황해도 7곳, 강원도 6곳, 경기도 8곳,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각 1곳, 전라남도 2곳, 경상남도 7곳(Choi, 2009: 754)
- 주 9) 기쁨에 넘친 이 자리를 깊숙한 골짜기 신선 집을 점쳤거니(多喜開筵別占洞天仙宅) 『동국이상국후집』 제10권
- 주 10) 최해(崔濬)의 중을 전송하는 서문(序文)에, “깊은 산 골짜기 사람의 자취가 드물게 이르는 곳에는 마땅히 이물(異物)이 있어서 여기에 모이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장도릉(張道陵)의 학문을 하는 자는 어느 산을 몇 번째 동천(洞天)이라고 하고, 아무개 진군(眞君)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한다. 이에 도(道)를 사모하고 세상을 싫어하며 수련(修鍊)하여 곡식을 먹지 않는 자가 이따금 그 가운데 깃들어서 살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신증동국여지승람』 제47권 강원도 회양도호부 산천편).
- 주 11) 두광정은 '동천'과 '복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이규경의 기록은 '동천복지'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주 12) 우리나라는 낙우송과 비슷한 시기인 1924년에 삼나무를 도입했고, 학명에는 삼나무가 일본 원산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중국에도 삼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이아(爾雅)』에 등장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내려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본초강목(本草綱目)』을 비롯하여 서거정(徐居正, 1420-1488),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이견창 등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에서 삼나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Kang, 2010: 101~105). 여러 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도 삼나무가 언급되었다.
- 주 13) Ha, H. S.(1994)은 동양에서 이상향 추구를 현실도피적 유가(儒家)의遁世地(遁世地), 초세적(超世의)이고 도선적(道仙的)의 무릉도원, 실학의 현실적 이상사회 건설을 설명하는 가거지론(可居地論), 지리산의 이상향 청학동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 주 14) Choi et al., 2000: 366.
- 주 15) 조식의 「유두류록」, 유몽인의 「유두류산록」, 성여신의 「방장산선유일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유한이 은거한 삼암(평사리)과 정여창이 은거한 악양정은 지리산을 유람한 문인들이 섬진강을 따라 청학동을 찾아가는 도중에 반드시 들리는 코스였다.
- 주 16) 연구 대상의 지리산 유람록에는 각자(바위글씨)가 청학동의 경관 요소로만 등장하였으나 전국에 산재한 원림에 '○○동천'이라는 각자가 많음을 미루어보면 지리산 일대에도 동천에 대한 각자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REFERENCES

1. Ahn, G. B.(2011). A Study on the Historical Landscape Cognition of Mt. Hee-ya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4): 40-48.
2. Choi, S. K., Kang, J. H., Jeon, B. C., Kim, J. Y., Yang, P. S., Lee, Y. S., Jung, H. S. and Kang, H. J. compiled(2008). Travel Records of Jirisan Mountain. Seoul: Bogosa.
3. Choi, S. K., Kang, J. H., Lee, J. H., Yang, P. S. and Lee, Y. S. compiled(2000). Travel Records by ancestors of Jirisan Mountain. Seoul: Dolbegai.
4. Choi, S. K., Jung, C. H., Jung, S. Y., Lee, S. H., Kang, J. H. and Jeon, B. C.(2013). Jirisan Mountain and Travel Literature. Seoul: Bogosa.
5. Choi, W. S.(2009). Spatial Characters of Korean Cheonghak-dong Utopi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6): 745-760.
6. Ha, H. S.(1994). A Study on Paradise in Chirisan Region, M.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 Jinju, Korea. pp.52.
7. Ho, S. H.(1995). A Study of Early Joseon Yoosanrok. Journal of Society for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18: 97-126.

8. Jung, C. Y.(2005). The Aspects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Utopias during the Chosun Period.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1): 66-83.
9. Kang, J. H.(2009). Literary Figuration of Scenic Spots, manifested in the MT. Jiri Outing Poems. *Journal of Dongbang Korean Classic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41: 363-427.
10. Kang, P. G.(2010). *The Dictionary of Tree*. Seoul: Guelhangari.
11. Kim, D. H.(2007). Making a Confucian Utopia in 'NaeAp'.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6(5): 118-135.
12. Kim, T. S.(2009). Ideal World and Nature Management at Hermits of Neo-confucian Scholar in Joseon Dynasty. Ph. D. thesis, Korea Univ., Seoul, Korea, pp.340.
13. Kim, Y. M. and Chin, S. C.(2002). A Study on the Spread Phase of Culture i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affected by Taois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3): 78-91.
14. Lee, C. H.(2014). The Scenic Site Value of Scenic Resources in Mt. Jiri Documented in the Joseon Era Travelling Records. Ph. D. thesis, Sangmyung Univ., Cheonan, Korea, pp.151.
15. Lee, H. J.(2010).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ongcheon in the Traditional Space of Landscape Architecture. Master's thesis, Univ. of Seoul, Seoul, Korea, pp.137.
16. Lee, H. S., Jung, H. Y., Ho, S. H. and Kim, K. M.(1997). *Yoosangee Literature of the mid-Joseon Dynasty Period*. Seoul: Jipmoondang.
17. Lee, J. H.(1995). Based on the Landscape Paintings in Yi-Dynasty = A Study of Utopian Landscap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3(1): 61-71.
18. Lee, J. M.(1997). Custom of Yoosan and Tradition of Yoogee.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sociation*, 12: 385-408.
19. Park, J. I.(1999). A Study on the "Yoo San Gi". *Journal of the Research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31: 145-181.
20. Park, S. J., Rho, J. H. and Sim, W. K.(2010). Taoist Hermit Motif Reflected in Seonyu Gugok-Wonli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8: 30-38.
21. Park, Y. M.(2004).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Yoosangee and its Meaning. *Journal of Korean Classics Studies*, 40: 73-98.
22. Rho, J. H. and Shin, S. S.(2010). Study on Enchanted Image and Scenic Value of Jeju Bangseonmu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1): 98-106.
23. Rho, J. H., Park, J. S. and Sim, W. K.(2011). Storyboard of Immortal Land in Gugok-Wonlim -A Special Reference to Goisa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1): 90-104.
24. Sim, W. K.(2007). Influence of the Ideal World Depicted in the Tomb Mural to the Garden Cultur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2): 11-24.
25. So, H. S.(2003). A Study on the Concept of Traditional Landscape through 'Yoosangee' written by the Scholar of Choson Dynasty- In the case of Mt. Jiri-. Master's thesis, Univ. of Seoul, Seoul, Korea, pp.135.
26. Suh, S. H.(2010). *Utopia of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Paju: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27. <http://krdic.naver.com>
28. <http://www.itkc.or.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7월 31일

심 사 일: 2014년 8월 29일(1차)

2014년 9월 14일(2차)

2014년 9월 20일(3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9월 2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